

청청 제주 자연 이미지 효과적 표현

(주)고내촌 '한라보리 고추장' 베스트패키지디자인어워즈 대상 수상



신지영

(주)오너디자인연구소 책임디자이너(차장)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는 국내 기업의 상품 개발 의욕과 인력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 아래 1995년부터 베스트패키지디자인어워즈를 제정,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품 그래픽스, 용기디자인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2008 베스트패키지디자인어워즈에서는 (주)고내촌의 '한라보리 고추장'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패키지디자인을 진행한 (주)오너디자인연구소 신지영 차장에게 제품 패키지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Saint Four Golf & Resort 및 (주)삼다의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해 온 (주)오너디자인연구소 책임 디자이너인 신지영 차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고 밤늦게까지 함께 고생하신 디자이너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주)고내촌의 '한라보리 고추장' 패키지디자인을 맡은 오너디자인연구소는 2001년에 설립한 제주 지역의 대표 디자인 전문회사이다. 그동안 '제주마썸'이라는 제주 공동브랜드와 '제주 방문의 해' 아이덴티티(Identity) 개발 등과 같이 아이덴티티(Identity) 개발부터 제주 삼다수 용기 디자인 및 가문 잔치, 한라우유 등의 패키지 디자인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방면의 그래픽 디자인 진행해 오고 있다.

2008 베스트패키지디자인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고내촌 '한라보리 고추장'은 소나무 숲속에서 장이 익어가는 고내촌의 이미지에 주력, 소박하지만 청정한 제주의 자연에서 자란 몸에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전통의 식품이라는 고내촌의 중심 생각을 패키지디자인에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신 차장은 "고내촌이 가진 고추장의 빛깔을 패키지에 표현하기 위해 많은 사진촬영을 통해 이미지를 얻어내고, 고추장이 담겨지는 항아리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 패키지기의 지기구조를 항아리의 모양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한라보리 고추장' 패키지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패키지 디자인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을 터.

무엇보다도 신지영 차장은 "특별하게 담겨지는 항아리를 느낄 수 있는 지기구조를 만들어보

자는 컨셉 때문에 지기구조 샘플링 작업을 할 때 쉽지 않았고, 고추장이다 보니 적절하고 의도한 대로 붉은 색상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모양도 잘 나오지 않았고, 지기구조 때문에 패키지의 그래픽 작업시도 위치 선정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수고 만들고를 몇 번 반복한 후에는 손이 익숙해져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재단해 내는 걸 보고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신지영 차장은 패키지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디자인 컨셉과의 갭을 최대한 줄여 최상의 퀄리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도 제품을 통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고민해 충분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패키지 디자인이 제품을 알리고 포장하는 역할을 넘어 판매증진, 광고, 홍보효과의 효율성과 맞물려 소비로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 신지영 차장은 고객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디자인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지영 차장과 (주)오너디자인연구소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 (주)고내촌 한라보리고추장

박초혜 기자